

【 종합 】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지방의회 뭉쳤다



광주일보·(사)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전남도·전남도교육청·(주)NHN 공동 캠페인

(사)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수연)과 (주)NHN(네이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해남 현산초등학교(왼쪽)와 송지 어린이초등학교에서 ‘작은 도서관’이 개관했다.

지방균형발전 지방의회협 과천시 규탄대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뭉쳤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전국 13개 비수도권 광역의회와 12개 기초의회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장상수 대구 동구의회 의장)는 1일 과천시 정부청사 앞에서 소속 의회 의장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피 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골기대회를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로 지방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며 “지금 지방의 민심은 하루 빨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골기대회를 마련 강태봉 회장 등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대표 4명은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흥오 국회의장을 차례로 방문,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및 규탄 결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골기대회를 마련 강태봉 회장 등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대표 4명은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흥오 국회의장을 차례로 방문,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및 규탄 결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안에 ‘이세돌 기념관’ 문연다

바둑 대국장·자료실 등 갖춰 26일 개관, 천원전 결승 대국도

한국 바둑 황제 이세돌 기념관이 그의 고향인 신안군 비금면에 들어선다. 신안군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비금 대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이세돌 기념관을 오는 26일 개관할 예정이다. 개관 기념으로 이세돌 9단과 강동운 8단이 벌이는 ‘박카스배 천원전’ 바둑결승 대국 제 2국이 이 기념관에서 열린다. 국내외 타이틀 8관왕과 2006·2007년 2년 연속 ‘한국바둑 대상’을 수상

한 이 9단의 고향에 문을 열 기념관은 전체 면적 798㎡ 규모로 바둑 대국장과 이세돌 기사의 관련 자료 전시실, 추억의 공간, 숙소 등이다 마련됐다. 또 최근 출품한 신안군 바둑협회와 한국기원이 공동으로 바둑 동호인과 어린이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해 신안군을 ‘바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는 1천200㎡ 전 신라(新羅)와 당(唐)을 오가며 활약한 고승 최치원(崔致遠·857~?) 선생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상산봉 바위 위에 올라 신선과 바둑을 두었다는 ‘바둑 바위’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10월 문연 라마다플라자

광주 첫 ‘특 1등급 호텔’ 인증

지난 10월 GRAND 오픈된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대표 김대원)이 지난달 25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실시한 등급심사를 통과해 광주권 최초의 특 1등급 호텔이 됐다. 라마다 광주호텔은 최고급 자재만을 이용한 유아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편리한 부대시설, 각종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 등 모든 부문에서 특 1등급 호텔이 갖춰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호텔 관계자는 “광주권 최초 특 1등급 호텔로 공식 인증을 받게 된 것은 지역과 지역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고품격 특급호텔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념해 라마다 광주호텔은 12월 한달동안 객실료와 각종 예약 메뉴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라마다 광주호텔은 3WELL 스위트 & 스파 회원 (062-717-7720/7721), 호텔 멤버십 골드회원 (062-717-7770/7771)을 모집 중이다. /이종태기자 tilee@kwangju.co.kr

▲특 1등급 호텔=종합관광호텔업 등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객실, 식당 및 주방, 종사원 수준, 주차 시설 등 9개 부문 총점이 90%를 넘는 국내 최고급 호텔에만 부여된다.

도서 6,000권·운영비 2,000만원 지원

해남 현산·송지 어린이 초교 ‘작은 도서관’ 개관

해남군 현산초등학교와 송지 어린이초등학교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지난 7월 전남도와 교육청, ㈜NHN, 광주일보 등과 학교마을 도서관 사업을 맺은 (사)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수연)은 1일 ‘현산학교 마을도서관’과 ‘송지어린이 초교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 앞서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공연과 함께 도서관 현관식, 백일장대회 시상, 책 버스

타고 동화여행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사)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은 이 두 학교에 동화책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신간 도서 3천권을 지원했으며, 전남도와 해남군에서는 자료 구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각 학교에 1천만원을 지원했다. 마을 도서관을 지원받은 학교 관계자는 “어린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신간 서적

을 지원받게 돼 너무 기쁘다”며 “도서관을 교육 통력으로 삼아 교과 과정과 독서 교육을 접목한 품격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방과 후에도 교사와 학부모(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이 도서관은 농촌지역 어린이와 마을주민이 언제라도 찾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해남에 더 많은 마을 도서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정부·지자체 정원 1% 행정 인턴 채용

광주 80명·전남 195명 고용 여저 생겨

정부는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의 약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행정인턴 등으로 공공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본청과 5개구를 통틀어 80여명, 전남도 본청을 포함할 일선 시·군에서는 모두 195명 가량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조 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1차 동요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천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고, 지자체도 정원의 1%인 2천800여명을 대졸자 공공근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이 선발하는 행정인턴은 평균 10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월 1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11개월간 행정인턴 30여명을 채용하는 등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부처는 올연말부터 이같은 ‘행정인턴’ 제도를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

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충과 자활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창업스쿨 등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성공 상담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체보증 재단을 통한 보증규모를 현행 총 6조 3천억원에서 내년 8조6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도 2천875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폐교교육을 통해 원활한 폐업을 돕고, 업종전환과 재창업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재기자금’을 내년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woo. Includes a cartoon illustration and text promoting a newsletter about the news industry.

“신문 이외 사업자 뉴스 편집행위 금지해야”

신문법, 국회·정부에 의견서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서 신문협회는 신문과 인터넷 신문 이외의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적인 취사선택·배열·배치·개작·변경·삭제 등 편집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법적으로

인론이 아닌 기업이 뉴스 편집행위를 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공익성·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지위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불법 복제, 공공손실, 복제 방송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뉴스 저작물 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전담 기구를 정부부처나 정부산하기관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Small advertisement for '광고점수안내' (High Score Guide).

Small advertisement for '큰씨몽' (Big Dream).

Small advertisement for '한정승인공고' (Limited Admission Notice).

Small advertisement for '공고인양인수' (Notice of Receipt).

Large advertisement for '완도명사십리 땅 판매' (Wando Myeongsapir Land Sale) with details on land parcels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for December 12th, listing various hiking routes and events.

Large advertisement for '(주)백두산약' (Baekdu Mountain Pharmacy) featuring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